

SK에너지, 화학부문 매출액 3조원

화학제품 시장 호조로 76% 증가 ... 영업이익은 18% 늘어 1522억원

SK에너지는 화학부문 매출이 76% 증가해 3조원을 돌파했다.

SK에너지는 1/4분기 전체 매출이 10조2011억원, 영업이익 3578억원, 순이익 316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26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5% 감소했다.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이익 등으로 29% 증가했다.

2009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화학부문은 매출 3조1818억원, 영업이익 1522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76%, 18% 증가했다.

정유부문은 매출 6조7858억원, 영업이익 1244억원을 기록했다. 영업이익은 2009년 4/4분기 1249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, 전년동기대비 71% 감소했다.

석유개발부문은 매출 1689억원, 영업이익 829억원을 기록했다.

SK에너지는 SK루브리컨츠 등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증가와 환율 관련 이익증가 등으로 173억원의 영업외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

SK에너지 관계자는 “주력인 정유부문에서 경기회복 및 수급 개선에 따른 정제마진이 상승으로 3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섰고, 화학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1/4분기 영업실적이 개선됐다”며 “앞으로 미래 성장동력 등을 발굴해 경영성과를 한층 개선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23>